

죽어감에 대한 이해 1

이항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과 교수

1. 서론: 죽음을 슬퍼하는 까닭은?

오는 16일이면 우리는 아직까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두 해를 맞게 된다. 이 불의한 죽음은 어린 생명의 죽어감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게 하였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였다. 일상에서 죽음은 관념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어감의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한 주검은 한 인간의 마지막 현존성이다. 그런데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은 타인의 주검을 땅에 묻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자신의 죽음을 묻을 곳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오디세우스는 죽음을 사랑에 묻었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지혜에 묻었다. 죽음이 삶의 일부인 까닭은 현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죽음에 인간의 실존현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으므로 죽음은 삶에서 어느 순간보다 중요하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한다. 삶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놓여있다. 따라서 삶 자체가 아이러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부조리하다. 우리가 태어남을 선택할 수 없듯이 죽음 자체를 선택할 수 없다. 둘 다 선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죽음은 모든 삶의 가치에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죽음으로 제한되기에 의미를 갖는다. 모든 존재는 한계를 갖고 있으

므로 가치를 갖는다. 모든 존재는 무한한 것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고 스스로 그 한계로 말미암아 상호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죽음의 상실은 현존재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상실이다. 죽어감이 의미를 갖는 것은 죽음의 상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의 상실에 노출되어있다. 삶은 죽음의 상실을 동반하고 있다. 죽어감을 경험할 수 없을 때는 이미 죽음의 상실이 엄습하고 있을 때이다. 삶은 다만 죽어감을 표현할 뿐이다. 죽어감의 귀결인 인간 죽음의 현존에서 실존과 존재가 만나게 될 것이다.

2. 죽음은 준비할 수 있을까?

쥬디 맥도날드 존스톤(Judy Macdonald Johnston)은 테드 강연에서 인생의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우선 그녀는 생체기능이 다하고 자립성이 제로로 쇠퇴하는 경우 계획을 세우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스스로가 원하는 임종기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어디에 머물고 싶은지, 어떤 의료적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자가 필요

하다. 가족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보호자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급히 병원에 이송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병력, 복용 중인 약, 주치의 등에 관한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밝은 봉투에 보험카드, 위임장, 소생술 거부장 등을 넣어 보호자의 차와 집 냉장고 앞에 붙여 놓는다. 응급한 경우에 매우 소용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간호인이다. 성격과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집이든 요양원이든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는 간호인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유언이다. 자신의 유언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다.¹⁾

이러한 죽음의 준비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삶이 미완인 것은 죽음의 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오고 남아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큰 슬픔과 아픔을 남긴다. 나아가 자책과 원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천천히 다가온 죽음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고 가족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긴다. 현대의료기술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필연적인 죽음을 연기시키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는 의문이기도 하다. 현대 생명공학은 죽음을 무한정 연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생명의 연장이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대가만큼 고통을 완화하고 생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지는 불확실하다. 현대의

료가 생명의 존엄성을 빌미로 죽음의 연기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죽음도 생명의 한 부분이기에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생명공학의 배후에는 죽음을 연장시킴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현대의료의 자본주의적 경향이 숨어있다. 이러한 죽음의 조건을 고려한 여러 가지 준비를 외적인 죽음의 준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적인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적인 준비이다.

내적 준비를 위해 우선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버나드 라운의 말처럼 죽어가는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되어 좀 더 편해지고 자신들의 고유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²⁾ 누구나 지나온 삶에 대한 과오와 회한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완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나온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눌 상대가 필요하다. 이 상대가 보호자이면 좋으나 때로는 친구나 전문상담자일 수도 있다. 신앙인일 경우 수도자나 성직자가 적합하기도 하다. 미완의 삶이지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지금까지 관계 맺어온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을지 모르는 갈등과 앙금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일이다. 관계적 존재인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글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다.

셋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지난 과오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또한

1 [http://www.ted.com/talks/judy_macdonald_johnston_prepare_for_a_good_end_of_life\(2014,04,22\)](http://www.ted.com/talks/judy_macdonald_johnston_prepare_for_a_good_end_of_life(2014,04,22))

2 버나드 라운,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몸과 마음, 2003, 346쪽.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풀어 주어야 한다. 실로 죽음의 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겸손한 순간이다. 그러므로 지나친 죄의식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과의 관계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믿음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죽으며 고통을 벗어나 이같이 사랑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서로를 영원히 묶어줄 신념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종교가 거행하는 임종기의 의례는 이러한 영적 준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적 준비는 외적 준비에 앞서서 평소에 준비해야 할 영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개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은 제한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뿐이다. 바람직한 죽어감의 과정을 이루도록 돕고 동반하는 것이 호스피스완화치료이다. “호스피스의 철학은 죽음을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어가는 과정을 돌보는 가운데 환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얻게 된다. 필연적 종말을 정면으로 대면하며 죽어가는 과정을 돕는 일은 치유행위의 하나이다. 호스피스 운동의 목적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³⁾ 버나드 라운이 인용한 호스피스를 통한 코넬트 박사의 좋은 죽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통증의 기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높아지고 진통제의 개발로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세 번째는 미처 해결하지 못했거나 대충 덮어 두었던 문제들을 털어놓고 논의하는 것이다. 미해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런데 죽음은 단지 극복되어야 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나 과제가 아니다. 병상에서 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는 과정에서 수필가 루이스 토머스는 로젠 블랫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형이상학적 현상으로 간주하던 시기에는 죽음에 존엄성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죽어가는 과정이 오랫동안 연장될 수 있으며 죽음은 실패의 증거로 간주된다. 죽어가는 환자는 별종의 사람이다. 죽음은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매우 새롭지만 우리는 죽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죽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숨기려 든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며 실패이다. ...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나는 실제로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어렵다. 항상 그래 왔다. 어떤 중요한 주제가 죽음만큼 그러한 상상력이 풍부한 주의를 끌어왔는지 의심스럽다...”⁴⁾

죽음은 인간이 마주하고 인식하고 체험해야 할 마지막 성찰의 순간이다. 죽어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죽음에 이르러 한 개인의 생의 의미가 귀결되는 순간이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죽음을 의식하는 삶에 있을 뿐이다. 타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의식하도록 일깨운다. 이것은 의도하

3 버나드 라운, 앞의 책, 349쪽.

4 [http://www.nytimes.com/1993/11/21/magazine/lewis-thomas.html?src=pm&pagewanted=3\(2014.04.22\)](http://www.nytimes.com/1993/11/21/magazine/lewis-thomas.html?src=pm&pagewanted=3(2014.04.22))

지 않은 죽음의 열린 메시지이며 나 자신의 죽음도 타인에게 그러할 것이기에 호혜적이다. 그런데 죽음은 알 수 없다. 인간은 알 수 없는 자신의 죽음에 다가갈 뿐이다. 우리가 죽음에 다가가는 것은 죽음으로 나의 정체가 밝혀지기 때문이다.

3. 사람은 혼자 죽는 것일까?

제인구달의 연구에 따르면 늙은 엄마 침팬지가 죽자 어린 침팬지가 얼마 안가서 죽은 엄마를 껴안은 채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자생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상실로 죽은 것이다. 유인원의 경우도 이리 한데 사람의 경우는 생존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은 어린 학생들의 죽음과 실종을 통해서 부모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증세는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거나 죽음에 동참하기 못한 일종의 죄책감에서 생겨난 것이다.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과정을 상상할 때 누구나 비통한 마음이 든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만큼 사람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참사는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신성한 생명권을 한순간에 앗아간 일이기 때문에 더욱 비통한 것이다. 죽음은 사회적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죽어가는 과정은 사회적 관계를 밝히고 정리하는 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이 죽음의 순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적극적으로 기쁨을 나누며 살지만 고통과 죽어감 가운데에서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

이 그 고통과 죽음을 나누며 살게 된다. 인제나 천재와 같은 재난이나 불의에 의한 타인의 죽음을 경험할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 사회적 고통이며 나아가 사회적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홀로 살 수 없는 인간은 사회적 삶 속에서 빈번히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죽음은 사회적 책임에 따른 죽음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죽음은 사회적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잃는 순간은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기도하다. 공자가 사랑하는 제자 안회를 잃자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탄식한 것은 사회적 죽음을 고백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의 인식보다 그 인식 과정이 오래 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하는지 그 까닭을 의식적으로 깨닫는 과정이 길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죽어가는 존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며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회적 소외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사회정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는 데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웃의 죽음에 관심이 없고 책임을 느끼지 못할 때 도덕적으로 무감하고 균열된 사회의식이 만연하게 된다.

5 『論語』, 「先進」, “顏淵 死 子曰 噫 天喪予 天喪子.”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은 첫째, 인간의 도덕적 공감이며, 둘째, 정의감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전이는 직관적인 사회적 감정과 사회적 합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도덕적 공감은 인간이 사회적 삶을 살게 하는 깨어 있는 사회의식이다. 정의감은 사태의 맥락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정의감은 도덕적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근거가 된다. 정의감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사태를 바라볼 줄 아는 분별력으로부터 나온다. 도덕적 공감과 정의감은 상호적으로 책임감을 상승시켜 책임 있는 행동으로 개인과 사회를 이끈다. 책임감이란 죽어감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식이며 실존의 양식이다. 인간의 삶은 매순간 태어나며 죽어가는 모순 속에 있기에 삶 자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할 수 없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삶의 저항은 여타의 저항과 다르다. 삶의 저항은 내적 저항이며 태어남과 죽음을 삶의 차원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저항이다. 이 일치하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상호적으로 일치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치를 위한 저항은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 사실 이 고통은 회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고통이다. 고통은 살아있음을 확인케 하고 나아가 삶의 부조리를 깨닫게 한다. 도덕적 공감은 고통의 근거를 인지하고 정의감은 행동으로 사회적 고통에 참여하여 삶을 의미화 한다.

일반적으로 태어남은 긍정적이고 죽음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실존적으로 낱알이 죽고 새롭게 살고 있다. 살아감이란 사실 죽어감의 동의어이다. 관점을 달리한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죽어감을 의식할수록 인간의 삶은 그 고유한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은 소외로 말미암아 사회적 삶을 상실하게 되었기에 역시 자신의 사회적 죽어감을 의식하기 힘들다. 죽어감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계와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식의 흐름을 자각하는 것이고 실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죽어감의 의식은 사회적 고통의 인식이다. 관계의 차원이 새롭게 설정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고통이다. 또한 고통을 개인적 차원에 한정하고 피하려는 소극적 자세에 삶이 머물 때 사회적 고통은 더욱 해소하기 어려워진다. 오히려 사회적 고통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할 때 삶은 생기와 의미를 되찾게 되며 공동의 완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다.

사회의 부조리로 인한 고통의 인식은 사회 참여의 자각이다. 사회적 고통을 공유하고 살아감은 사람다운 죽어감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간다. 그러나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죽어감은 죽어감의 본래의 의미를 실현하는 인간다운 죽어감이다. 죽어가는 순간을 지키는 까닭은 누구나 겪어야 할 순간을 함께하는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죽어감을 동반하는데 생명의 경외가 있다. 생명현상은 지속적으로 동반을 통하여 나타났다. 여인이 한 생명을 낳으며 어머니로 새로 태어나듯 죽어감도 홀로 진행되지 않는다. 죽어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매 순간 서로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함께 죽어가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는 가운데 사는 것이다.